

1. 인삼 효능에 대한 역사 기록

현존하는 인삼의 효능에 대한 첫 기록은 <신농본초경>에 나타나는 ‘主補五臟 安精神 安魂魄 止驚悸 除邪氣 明目 開心益智 久服輕身延年’이다. 이 효능은 그 후에 저술된 의서들에 의해 계승되어 맥을 이어왔다. 특히 인삼의 한의학적인 약리해석은 소문(素問)에 바탕을 둔 성무기(成無己)의 <주해상한론(註解傷寒論)>이 1172년에 발행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임상에서 경험한 치료 효과를 중심으로 이론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인삼의 주된 치료효과로는 정신신경질환, 소화기질환, 호흡기질환, 순환기질환, 외과적 질환, 안질환, 소아과질환, 부인과질환 등 신체기능의 허약으로 발병하는 모든 질환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인삼의 치료를 신체의 부위면에서 생각해 보면 활용되고 있지 않은 부위가 있다. 예를 들면 족부(足部) 질환, 순부(唇部)에 발생하는 질환, 요부(腰部)질환, 대퇴부(大腿部), 배부(背部), 골부(骨部)에는 쓰이지 않고 있다.

1) 주요 본초서에 수록된 인삼의 효능

<상한론>

인삼 처방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등장한다. 이 처방은 오늘날에도 한의학의 임상 실험에 실용되고 있다. <상한론>에는 모두 113개의 처방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 중 인삼을 배합한 처방은 모두 21방(方)이 있다.

<신농본초경집주>

인삼의 약리효능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하게 기록한 최고(最古)의 약물서다. 이 책에는 모두 365종의 약물이 소개되어 있으며 약을 상약, 중약, 하약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인삼은 감초, 복령, 오미자 등 120종 약재와 함께 상약에 속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인삼의 효능에 대해서는 ‘오장을 보하고, 정신을 안정시키고, 혼백을 고정하여 경계를 멈추게 하고,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병사(病邪)를 제거하여 주며,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열어 더욱 지혜롭게 하고, 오랫동안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장수한다.’고 정의했다. 이 효능설은 2천년 동안 별 수정 없이 계승될 정도로 잘 정리된 표현이다.

<신농본초경>에 기술된 상약 개념은 ‘인삼이 비특이적으로 생체의 저항력을 강화시켜 신체의 전반적 생체기능을 정상화시킴으로써 항상성을 유지케 하는 작용이 있다’고 주창한 소련의 약리학자 브레크만의 인삼 적응설(Adaptogen theory)과 잘 부합된다.

<본초강목>

<신농본초경>을 중심으로 명나라 이전에 간행된 본초서 800여권을 참조하여 무려 30여년에 걸쳐 52권으로 완성한 약물 관련 대작이다. 중국에 현존하는 의서 중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약물서다. 이 책에는 모두 1천892종의 약물과 1만1천096가지의 처방이 집대성되어 있으며 각 약물의 형태, 맛, 특성, 채취방법과 시기, 가공법과 함께 각 약물의 효능이 상세술되어 있다. 인삼의 효능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인삼의 산지별 품질에 대